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대물' 차인표

야심만만 '차도남'

〈차가운 도시 남자〉

"강태산, 멋진 것 같지만 기회주의자 권모술수 쓰는 나쁜 정치인 부각 아쉬워 바른생활 이미지…정치엔 관심 없습니다"

"서혜림같은 좋은 정치인이 실제로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물'에 출연했습니다."

차인표(43)가 매주 수~목요일 밤 딱 떨어지는 멋진 수트차림을 하고 나와 짙은 눈망울 가득 힘을 주며 조국의 미래에 대한 '우국충정'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부패정치, 금권정치, 밀실정치를 청산하고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는 야심만만한 개혁파 국회의원 강태산. SBS TV '대물'에서 주인공 서혜림(고현정 분)의 반대파인 강태산을 연기하는 그에게서는 매회 강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온다.

"'대물'은 서혜림처럼 맑고 순수한 영혼의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그리는 작품으로 그점이 부각돼야한다"며 "그런 점에서 강태산이나 권상우 씨가 연기하는 하도야는 부수적인 인물일 뿐"이라고 말했다.

"시놉시스를 처음 받았을 때 가슴이 떨렸습니다. 한류 붐을 타고 우리 드라마가 아시아 전역에 방송되면 여전히 여성들이 억압받는 나라의 여성 시청자들은 우리 드라마를 보며 큰 희망과 위로를 얻을 것 같았습니다. 서혜림처럼 평범한 가정주부가 대통령이 되는 드라마를 보면 용기를 얻지 않을까요."

강태산은 언뜻 보면 개혁파 같지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인물이자, 선과 악이 공존하는 캐릭터다.

"강태산은 개혁정치의 선두주자이지만 이미 현실정치에 많이 물든 인물입니다. 목표를 위해 나쁜 짓도 서슴지 않죠. 여당의 우두머리 조배호(박근형)를 흑막정치의 대표로 생각하지만 어느새 그 역시 조배호와 닮아가고 있어요. 강태산이 멋진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별로 신빙성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 표변하거든요.(웃음) 그런 모습에 서혜림도 결국엔 실망하게 될거고요. 15~16부부터는 서혜림과 대립각을 세우게 될겁니다." 그는 현재 '대물'에서 강태산이나 조배호, 오재봉(김일우) 등 권모술수를 쓰는 나쁜 정치인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바른생활 사나이'라 불리는 그는 오랜기간 부인 신애라와 봉사, 기부활동을 펼치며 모범적인 연예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을까.

"정치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 그가 내세운 이유가 눈길을 끈다.

"정치인들은 자기를 희생해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생활, 직업 등을 포기해야 하는데 전 그럴만큼 희생정신이 없습니다. 내 생활도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가 언젠가부터 본업인 연기보다 봉사활동에 더 전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할까.

"그건 전혀 다른 거죠. 봉사는 하면 할수록 기쁨과 사랑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나눠도 나눠도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사랑의 기적입니다."

사실 차인표는 올해 초 KBS 1TV 사극 '명가' 이후 당분간은 봉사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명가' 이후 봉사를 다니는데 어린 아이들은 제가 연예인인줄 모르더군요. 제가 후원하는 구호단체 컴패션이 절 앞세우는 것은 제가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라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끌 수 있기 때문인데 사람들이 저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작품 활동은 계속 해야겠구나 생각했죠."

동기야 어찌됐든 차인표는 '대물'을 통해 연기자로서의 기쁨을 다시 느끼고 있다.

"고현정, 권상우씨랑 연기할 때 정말 좋아요. 또 이순재, 박근형, 임현식 선배님이 쫙 받쳐주시니 정말 좋습니다. 그분들과 호흡을 맞출 때는 찌릿찌릿해요. 특히 현역 최고령인 이순재 선배님과 연기할 때는 그분과 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습니다. 이분들 모두 그 많은 대사를 다 외워옵니다. 촬영장에 대본 들고 나오면 프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

'JYJ' 믹기유천

욕심만만 '꽃미남'

"동방신기 해체 후 방황 많았지만 작사·작곡·노래에 연기까지 내 일에 욕심나는 지금이 행복"

"데뷔 후 처음으로 내 일에 대해 욕심이 생겼어요. 그동안은 끌려 다니는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은 내가 내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정말 잘하고 싶어요."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을 통해 연기자 신고식을 성공적으로 치른 그룹 JYJ의 믹키유천(24)이 연예계 활동에 대한 의욕을 불태웠다.

작사·작곡·노래에 이어 연기까지 영역을 넓힌 그는 "이것저것 하지만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게 없다"며 "동시에 다 잡으면 좋겠지만 그러긴 힘드니 하나하나씩 천천히 다져나가고 싶다. 그 네가지 모두 제대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버지니아에서 살다가 한국에 온 믹키유천은 동방신기의 멤버가 되면서 아시아 최고의 스타가 됐다. 그러나 지난해 동방신기라는 이름을 포기하고 영웅재중, 시아준수와 JYJ를 결성하면서 그는 자신의 선택에 따른 많은 변화와 스트레스를 겪었다. "그나마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처음에는 발 뻗고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둥글게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받고 고민거리도 많지만 내 일에 욕심을 내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JYJ는 최근 월드와이드음반 '더 비기닝'을 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미국 팝계의 유명 프로듀서인 카니예 웨스트와 로드니 저킨스가 참여한 이 음반에는 인트로를 포함해 총 8트랙이 수록됐다. JYJ는 음반 발매를 앞두고 미국 빌보드지의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다. 비록 돈 주고 사는 광고지만 이 광고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빌보드지 표지에 나온 것을 보니 진짜 신기했어요. 미국에서 늘 봐왔던 잡지인데 우리가 실려 있고, 빌보드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에 대한 소개가 나오니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연합뉴스

포미닛 "日서 잘나가요" 드라마 오프닝곡 불러

인기 걸그룹 포미닛(4Minute)이 일본 드라마의 오프닝곡을 부른다.

17일자 산케이스포츠는 올 5월 일본에 데뷔한 포미닛이 내년 1월 시작하는 아사히TV의 새 드라마 '악당-중범죄 조사반' 오프닝곡(타이틀 미정)을 부른다고 전했다.

한편, 10월 27일 세 번째 일본 싱글 'FIRST/DREAMS COME TRUE'를 선보인 포미닛은 12월 4일 도쿄의 제프도쿄(Zepp Tokyo)에서, 5일에는 오사카의 도지마 리버 포럼(DOJIMA RIVER FORUM)에서 단독공연 '4Minute LIVE Energy Vol.2'를 개최한다.

인생이 순탄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길흉화복은 성명 삼자에 다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신생아작명전문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이름입니다.

타고난 사주(숙명)가 하나인 것처럼 자기에게 맞는 이름(운명)도 하나뿐입니다.
예로부터 사주가 좋은 거지는 있어도 이름 좋은 거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숙명(사주:년·월·일·시)은 바꿀수 없지만, 운명(성명)은 바꿀수 있습니다.

1. 아무리 사주에 좋은 행운(幸運)과 복(福)이 들어있다 하여도 성명삼자(姓名三字)가 좋지 않을 때에는 필히, 불의의 재앙(災殃)과 악운(惡運)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성명삼자로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의 길흉화복(吉凶禍福) 및 재물운(財物運)을 신기하게 알 수 있습니다.
3. 성명삼자로 일평생의 모든 운(運)이 좌우되오니 이번 기회에 감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가족의 이름을 무료로 감정해드립니다.

상담은 전화로 예약을 해주시기 바라며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社團法人 星谷 傳統文化 硏究會 대표전화 227-2356
星谷作名·鑑定專門哲學院 010-7671-5623
위 치 : 동구 계림동 마사회 진주가구 사거리 옆 성곡빌딩 1층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Daum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완비)

◆ 홀 : 연인, 친구, 가족(2인석, 4인석, 6인석)
◆ 소모임(룸) : 직장회식, 계모임(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대모임(룸) :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 일	영업시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DINNER	16:00~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